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은 바로 구세주 하나님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은 마귀의 마음을 버리라는 소리

세상 말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듯 저렇듯 하늘나라만 가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에 의하여 하는데, 죄인이 하나님에 의하여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나를 이겨야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사망권세를 이겨야만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씨름을 하는 선수가 상대방을 이기려면 사력을 다 해서 힘을 써야 이길까요? 이제 그대로 가만히 서 있어도 이길까요? 사력을 다 기울여서 힘을 써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력을 다 기울여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마귀한테 지고 있는고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마귀 마음이 마귀요, 나의 마음이 마귀인고로 나의 마음,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을 항상 품으면 바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지고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과 불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은 바로 마귀의 마음을 버리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은 바로 내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이요, 내 마음을 품으면 나라는 마귀한테 지게 되어 있는고로 그러므로 나라는 그 마귀를 이기려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나를 이겨야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나를 이겨야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나를 이겨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지 나를 못 이겨가지고는 구원도 없고, 나를 못 이기면 바로 지옥에 가



구세주 조희성님

게 되어 있고 죽게 되어 있는고로 공동묘지에 가기 싫어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니까 사망의 영이 되는 것이요, 사망의 영에게 지배를 받으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것이 죽지 않는 학문의 근본 학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과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의무와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온 인류를 지옥에 보내는 책임이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에게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만 항상 품으면 바로 나를 항상 버렸다가 된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실천을 해서 영생을 쟁취해야 그래야 온 세상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기는 생활, 내 마음을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의식이 마귀의 영이므로 내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만을 항상 품기만 품으면 바로 나를 항상 버렸다가 됩니다. 나를 버리기만 하면 나라고 하는 마귀가 죽으며, 나라고 하는 원죄가 제거되고, 이제 그대로 제거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고로 마귀를 이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 되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이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부활함을 입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망권세를 이긴 하나님, 마귀를 이긴 하나님, 원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인고로 나만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제단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세주 하나님 될 후보자들인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의 후보자가 되는고로 하나님에게 선택 받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의 한 사람 구실을 하기가 급급해서 그냥 그것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교인의 한 사람 노릇을 하느라고 그냥 안감함을 쓰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한심한 사람입니다.

희생적인 마음이 이긴자 되는 비결

하나님의 마음만 품으면 바로 나를 이겼다가 되고, 영생의 확신만 가지면 바로 나를 항상 버렸다가 되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기만 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로 나를 항상 버렸다가 되고, 나를 이겼다가 되고, 마귀를 이겼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면 바로 나라고 하는 주체 의식이 완전히 제거되고 죽는고로 완전히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론, 부활론, 안식일론, 말세론, 천국론, 선악과론, 생명과 일론, 창조론 따위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논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도 들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정확하게 논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성경과 불경에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을 정확하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요, 가족을 생각하는 것이 관심의 음란죄요, 나를 의심하는 것이 나를 의심하는 음란죄라고 했으며, 온전히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의심죄라고 이 사람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말해보지 못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비

결, 영생할 수 있는 비결, 마귀를 이기는 비결, 나를 항상 버리는 비결을 정확하게 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는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이래도 한 평생, 저래도 한 평생인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죽는데, 기왕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죽지 않는 길이 있다면 결사적으로 투쟁을 해서 죽지 않는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서 죽지 않는 사람이 되면, 죽지 않는 사람이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죽지 않는 비결을 아는 사람이 되는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실 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지 않는 길로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식 된 도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자꾸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긴자 구세주의 말씀대로 실천을 해서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피가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 투쟁을 해서 자신을 이기는 생활, 마귀를 이기는 생활, 사망권세를 이기는 생활을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긴 설교가 필요 없고, 사실은 구원론이니, 부활론이니, 신약론이니, 창조론이니, 선악과론이니, 생명 과일론이니, 안식일론이니, 말세론이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 되는 비결을 말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이제 구원론도 해답이 되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구세주론도 저절로 알게 되고, 천국론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나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고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이걸 모르는 게 사아비 종교인 것입니다.*

1991년 10월 2일자 말씀 중에서
말씀 정리 / 원현욱 기자

이긴자 출현으로 원죄 완전소멸

이긴자 하나만 나오면 아담과 해와, 조상대대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는 의식이 마귀의 마음이고 그러므로 나를 항상 버리라는 말은 나만 버리면 죄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없어도 죄가 모두 없어졌다가 되고, 내가 구원되면 조상 대대로 다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긴자 하나만 나오면 아담과 해와, 조상 대대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아담과 해와 조상들이 구원을 받았

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다 구원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긴자가 죄나 나를 때에는 조상 대대로의 죄를 다 이기고 조상 대대로의 죄를 다 제거하고 이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긴자 하나만 나오면 조상 대대로의 그 죄가 되는 마귀의 영을 죽였으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자신의 죄만, 자신 속에 있는 마귀만 죽이면, 자신 속에 있는 그 마귀만 제거해 버리면 구원인 것입니다.*

1992년 9월 23일자 말씀 중에서

[연재] 불로불멸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작용

누구나 쉽게 빠져드는 편견과 고정 관념이 있게 마련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육독 영과 육의 문제가 더 그렇다. 몸은 그런대로 알 것 같은데 마음의 현상만은 신비한 무슨 작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행위와 현상은 가시적인 것으로서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열 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속담처럼 상대방의 마음과 사고는 도대체 비밀스럽다. 과연 육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걸까? 그것은 사람의 심리란 모르게 있어서 드러나는 뉘가 기묘한 이치가 담겨져 있으리라 착각과 기대도 한 몫 한다. 사실 알고 나면 아무 것도 아닌데 말이다.

서구사회에서는 특히, 심리학과 체육학으로 나뉘어져 몸과 마음이란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전혀 다른 연구

분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심리학과 의학도 마찬가지로 심리학 중에서도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다루는 정신분석학과 인간의 행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 전혀 상반되게 취급되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과학적 유물론적 입장으로 볼 때 불가피한 일 이겠지만, 사실 그러한 과학적 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 방법은 결국 살아 있는 인간의 전체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한 단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불구적 사고(思考)로 만든다. 예컨대 인간이 정신적인 면만을 중요시하면 인간을 '유령'으로 만들 것이요, 그렇다고 육체적인 면만을 중요시한다면 인간을 '물질'로 전락시켜 버리는 꼴이 된다.

정확하게 말해서 인체는 심리와 생리가 하나로 작동한다. 마음이라 해도 신체를 포함한 마음이며, 신체라고 해

도 마음을 포함한 신체이다. 몸과 마음이 결코 따로 분리될 수가 없는 증거는 무궁무진하다.

감정과 신체와의 관계

예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인체를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이해하여 '심리니, 생리니' 하며 특별히 구별하지도 않았다. 동양의학은 인체의 각 장부 자체가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심(心)은 기쁨(喜), 폐(肺)는 근심(憂), 비(脾)는 생각(思), 간(肝)은 분노(怒), 신(腎)은 공포(恐)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흔히 사람들은 심신의 상관적 관련성을 은연 중에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놀랐을 때, '간이 콩만 해졌다'고 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가리켜 '담이 크다', 기분이 상했을 때, '비위가 상했다'고 하고, 남모르게 나쁜 짓을 했을 때 '심장이 썩었다'고 하기도 한다. 물론 서양에서

도 본능적으로 가슴과 심장 감정이 나오는 것으로, 머리는 정신이 나오는 것으로, 배는 본능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일상 속에서 감정과 신체와의 관계, 변화의 실태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이 몹시 기쁘고 즐거울 때, 그 얼굴은 밝고 환한 붉은 홍조를 얼굴에 띠며, 몹시 출거나 크게 공포감을 느끼면 사색(색: 검붉은 색)이 되어 얼굴색이 어두어진다. 또 근심 걱정을 심하게 하면 얼굴이 핏기가 없어지고 꺼칠해지며, 남에게 수치스런 일을 당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돌린다. 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는 몸은 움츠러들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생리적 현상을 관찰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밀접한 상관관계의 사실적 체험과 현상들이 마음과 육체를 분리해서 보려면 볼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아

니고 무엇인가. 특히 인상과 관찰, 한 사람의 인격뿐만 아니라 삶의 전부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우리는 입버릇처럼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외모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상대방의 심적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해 내기도 한다. 관찰 등은 마음과 육체의 일원성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잣대가 되는 것이다. 굳이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아도 이러한 다양한 외형적 사실만을 규합해 보아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심리와 생리는 이분법적 관계로 나눌 수 없다

이렇듯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몸과 마음의 관계를 파악해 보아도 인간의 심리와 생리의 관계를 결코 이분법적으로 나눌래야 나눌 수가

없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현상과 육체적 현상은 물론, 인간 유기체(생명체)의 모든 측면들은 상호 연결되고 의존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심리의 변화가 즉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생리적 변화가 즉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그 둘의 작용은 일체이기에 동시에 나타나며 반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굳이 억지로 구분한다면 어느 쪽이 먼저 자극을 받아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선후가 결정된다. 만약 육체에 바늘을 찌르면 먼저 육체 쪽으로 시신과 감각을 받으면 신경과 감각이 마음 쪽으로 먼저 갈 것이다.

단지 자극의 수용지점에 의해 변화의 선후가 있어 보일 뿐이다. 이렇듯 밖으로 들어난 사실만 가지고도 명백한 영육일체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심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영육분리의 허상이 그렇게 간단히 뽑혀진 않을 것이라 본다. 계속해서 심리의 변화에 의해 생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생리의 변화에 의해 심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좀더 속속들이 파헤쳐 보자.*

김주호 기자

심리(心理)와 생리(生理)의 관계에서 본 영육일체론(靈肉一體論)